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공동제작

스트레인지 뷰티

Strange Beauty



THÉÂTRE
DE LIÈGE

이 공연은 (재)국립극단 [연출의 판] 사업(예술감독 윤한술)을 통해 교류한 벨기에 리에주극장 Théâtre de Liège, Belgium과의 연출가 상호교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2022년 8월 10일 벨기에 스파 로열 페스티벌 Royal Festival de Spa 야외무대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주요연혁

2019. 03.	국립극단-리에주극장 협업 양해각서 체결
2020. 08. 26. - 09. 05.	1차 워크숍(온라인) 진행
2021.	공연일정 연기 / 변경 양해각서 체결
2022. 02. 14. - 02. 19.	2차 워크숍(벨기에 대면) 진행
07. 04. - 08. 09.	벨기에 현지 연습
08. 10. - 08. 11.	벨기에 공연(세계초연) @스파 로열 페스티벌 야외무대
09. 01. - 09. 18.	한국 공연 @소극장 판
12. 13. - 12. 17.	벨기에 공연(예정) @벨기에 리에주극장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스트레인지 뷰티>가 소극장 판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 모두를 뒤흔든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으나
그 사이 예술가들의 성찰과 고민, 아이디어는 숙성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흥미로운 판을 벌인 배요섭 연출과, 각자의
분야에서의 경험치를 이 새로운 판에 녹여낸 다채로운 예술가들은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며 놀라운 화학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라는 경계, 장르라는
경계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예술가들이 모인 <스트레인지 뷰티>의 시작점에는 벨기에
리에주극장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만남이 무산되고 공연이 연기되는 등
술한 풍랑에도 작품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쓴 리에주극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공연의 첫 번째 장으로, 더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게 해준 스와 로열 페스티벌에서의
무대 역시 뜻깊습니다.

2019년부터 약속해온 공연을 드디어 관객 여러분께 선보이는 순간입니다. 일견 낯설고
독특해 보이는 이 작품이 여러분 내면의 감각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광보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Stphane Deleersnijder

이야기와 미학, 공연 기법을 나누는 비유럽 파트너와의 교류는 저희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과는 지난 몇 년 간 연극과 무용 분야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으며, 한국 공연예술계의 풍부한 문화유산, 공연자들의 탁월한 실력, 동시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미학 등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리에주극장은 예술적 활동, 지식, 언어의 공유를 통해 양국 아티스트의 교차적 사고를 촉진함으로써, 관객의 관점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놀랍고 매혹적인 공연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지난 2년 간 매우 힘든 시기를 겪으며,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아우르는 연결고리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급격한 변화 가운데, 여러 문화권에서 개발한 자원을 한데 모아 보다 친밀한 관계 형성 및 관심과 협조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립극단의 훌륭한 팀이 보여준 끈기가 리에주극장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만나서 맺은 결실입니다. (국립극단의 김옥경 님, 이정민 님, 그리고 리에주극장의 마빈 로버트 Marvin Robert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국 아티스트의 의지와 열정 덕분에 <스트레인저 뷰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한국과 벨기에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인간과 예술을 고찰하는 이 흥미진진한 모험이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르주 랑고니 Serge Rangoni

벨기에 리에주극장 (유럽 연극·무용 창작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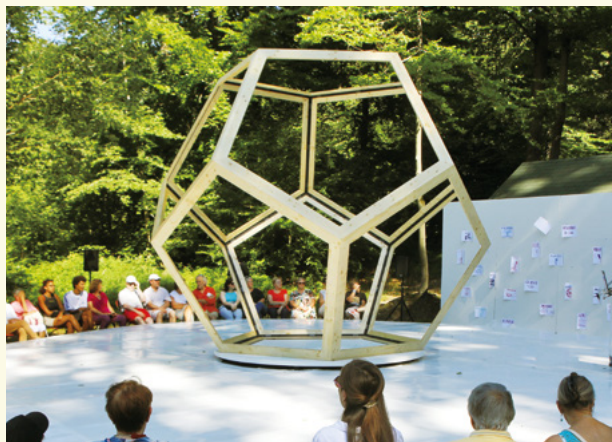
극장장 겸 예술감독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인간은, 혹은 자연은 아름다움의
감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이 공연은 답할 수 없는 자기제귀적인
질문을 마주한 예술가들의 응답들이다.
언어와 침묵의 너머를 지향했던
무문관의 공안들에 착안하여
참여작가들은 몸의 감각으로 이 질문에
다가가려고 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즉흥적인 이 공연은 농크 스탠스
(영원한 현재)만을 따라간다.

*What is beauty?
Where does beauty come from?
Why does humanity or nature appear to pursue
a sense of beauty? Strange Beauty presents
various artists' responses to such unanswerable
self-recursive questions. Inspired by the koans in
The Gateless Gate that sought to reach beyond
language and silence, the participating artists
have approached these central questions through
bodily senses. This improvisatory performance
destroys the boundary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and only follows eternal
existence (nunc stans).*

스파로열페스티벌 공연 현장





아름다움에 관한 한 연구

이 작업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게 될 거 같습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모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가. 아름다움을 의식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의식한다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인가. 이런 질문들로 저는 지난 3년을 보내왔습니다.

참선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고 누가 물었을 때 조주선사가 "무 無!"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대답인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無'라는 물음을 마주하는 동안 나는 수많은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의 '나'이기도 하고, 그 너머의 또 다른 '나'이기도 합니다. 함께 작업에 참여한 여섯 명의 예술가들도 역시 지난 2년 동안 이런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행위는 무한 순환하는 피비우스의 띠 같은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없어지는 경험, 영원한 현재 속에 머무는 경험 말입니다.

무위 無爲, Non-Agir, 하고자 함이 없는 함. 이것은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자연으로부터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의 숨겨진 본성(본래면목)이 드러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은 분명 무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애써 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늘에서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올려다 볼 때, 바닷가에 앉아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파도를

바라볼 때, 모닥불이 꺼진 후에 남은 불씨들이 반짝이는 것을 내려다 볼 때, 가을 하늘을 유려하게 미끄러져가는 구름들을 구경할 때, 즉흥수행법에 참여한 퍼포머들과 몸을 맞대고 즉흥춤을 출 때, 미황사 도솔암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마다 나의 몸 안에서 기묘하게 공명이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의 경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봅니다.

이 작업은 함께 작업한 예술가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아름다움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선보이게 될 것은 이런 질문의 과정에서 남은 흔적들입니다. 이 공연에서 스펙터클한 아름다움을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선보이는 장면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의 과정에서 다시 구성된 또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작가로서, 배우로서, 무용수로서,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영상작가로서, 연출가로서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작업을 위해 무문관(無門關)에 담긴 공안(公案)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온 질문들이 이런 공안들과 맞닿아 있고, 우리가 결국 몸을 통해 던지게 될 공연도 공안과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문관 48칙 공안 중에서 12개의 공안을 골라서 함께 읽고,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이고, 머리말에 두고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공안에 대한 코멘터리를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발전시켜 장면으로 만든 것이 관객들이 만나게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극장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선보이기 위해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한

우리의 과정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이 작업에서 저는 연출이라기보다는 콘셉을 제안하고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펼치고 놀 ‘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신적, 물질적인 환경을 고안하고 안내해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저는 판이라고 생각해서 판을 제안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판 디자이너’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판 디자이너란 개념은 오랜 시간 저와 작업을 함께 해온 동료인 최용석 작가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그 개념이라는 그릇 안에 작업의 흔적들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작가들에게 판은 세 단계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여름, 벨기에 Huy라는 도시의 티벳탐플과 한국 해남의 미황사에서 처음 위빠싸나 명상과 참선을 경험한 참여작가들은 그 후 2년 동안 이 경험을 이어와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를 각자만의 형식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명상은 좌선, 움직임, 춤, 그림, 영상, 사운드 등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문관의 공간들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 지나쳐서도 안 되는 역설의 질문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몸으로 화답해야 하는 판에 놓인 것입니다. 2022년 7월 3주 동안 각 공간들을 주제로 매일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극장 안에 설치될 대형적 공간과 구조물입니다. 이 물리적 환경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신적, 물리적

움직임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들이 생성되고 경험들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판에서 창조된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엮이어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나를 포함하여 이 작업에 참여한 작가들이 스스로의 욕심이나 과도한 의도 때문에 예술가로서 실수를 하게 되지 않았는지가 염려됩니다. 그런 욕망 때문에 뭔가 멋진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 서로 어긋나는 흐름들을 붙들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참여작가들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그들 또한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을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의 순간들이 관객들과 더 순수하게 공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매 공연마다 모든 관객들과 그런 공명이 생기기라는 바람 또한 더 큰 욕심이라 것을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Non-Agir의 상태로 무대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 8월 1일 벨기에, 리에주 배요섭



배요섭 Bae Yo-sup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공연창작집단 '뛰다'에서 20년 동안 연극 작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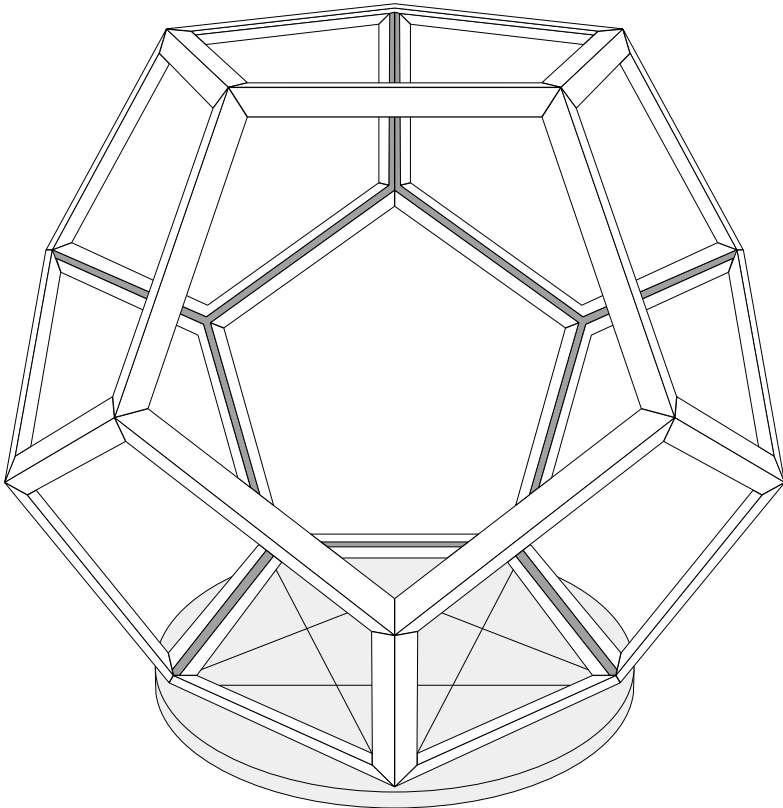
2010년 서울을 등지고 강원도 화천으로 내려와 뛰다의 동료들과 함께 문화공간 예술틔밭을 설립하고 지역에서 예술하기를 실험하며 살았다.

2021년에는 '공리소 문다'라는 리서치그룹을 만들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탐구하는 일을 시작했다. 좋은 삶이 있을 때 좋은 예술이 가능하듯 좋은 예술이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쓸모없음이 예술의 본질이라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하고 있다. 예술의 여러 경계에서 어슬렁거리며 춤과 음악, 미술 하는 예술가들과 놀기 좋아하고, 그 놀이 속에서 몸을 통해 서로 만나는 경험을 추구한다.

주요작품

<나무, 물고기, 달> <휴먼 푸가> <이 슬픈 시대의 무게> <바후차라마타; Beyond Binary>
<노래하듯이 햄릿> <하루이야기>

**스트레인지 뷰티,
NO, it's not about
SPEctacle.**



이 작업은 오감으로 보고 즐기고 감상하고
비평하기 위한 어떤 스펙터클을 만드는 것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삶의 한 순간을 잠깐
즐겁게 만들고 사라지는 아름다움보다는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것과 좀
더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라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달라지는 어린아이의 표정과 몸짓을 발견할
때 부모가 느끼는 감사와 축복의 마음,
생기를 잃어가던 반려식물이 어느 날 아침
조금 생생해져 있을 때 느끼는 충만한 기쁨,
늘 하늘에 떠 있던 별과 달이 놀라운 우주의
신비로 다가오는 순간의 벅참, 훔날리는
눈송이의 춤을 바라볼 때 품게 되는 내적
광활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아이들의 사소한 변화를 늘 발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훔날리는 눈송이가 누군가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압니다. 눈송이가
쓰레기이길 멈추고 춤이 될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주변의 모든 것들에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시간, 저기도 거기도 아닌 장소,
지금여기에 머무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삶의 가능성,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가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술가들이 보내는 오랜 훈련의 시간은 그런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그런 시공간적 경험의
매개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연을 위해 시각, 연극, 춤,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 온 예술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3년이 넘는 작업 기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들은
벨기에와 한국에서 각자, 또 함께 명상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을 '볼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은
더욱 아닙니다. 물론, 볼만하지 않은 것을
만들기 위함은 더욱더욱 아닙니다.

〈스트레인지 뷰티〉는 말 할 수 없는 것,
나로부터 출발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어떤
순환, 빛과 어둠의 경계가 없는 세계를 매 순간
드러내고자 합니다. 공간을, 시간을 가만히
더듬는 예술가들의 손과 발과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부딪쳐 얹히어
새로운 패턴으로 직조되는 바로 그 순간을
관객들과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극장이라는
공간의 안팎에서 관객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마주치는 모든 것들, 그들의 색깔과 질감과
무게와 냄새, 그들을 둘러싼 공기와 빛과 소리,
그런 것들이 〈스트레인지 뷰티〉를 드러내는
주체들입니다.

‘연극’이나 ‘공연’이 어떤 틀이 되는 대신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겪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해 다시 그들의 삶을 가리키는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2. 7. 25. 벨기에 리에주에서, 황혜란

스트레인지 뷰티에 이르는 여정

판 디자인·연출 배요섭

이 작업은 2019년 9월 국립극단의 ‘연출의 판’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발했다. 본격적인 작업은 2020년 1월에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며 2022년 8월이 되어야 겨우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몇 번 일정이 연기되고,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영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확진자가 생겨 중간에 참여 못하는 상황도 생기기도 했다. 참여 예술가들 하나하나의 경험과 생각, 창의적 시도들이 모여서 작품이 되어가는 작업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작은 변화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20년 코로나의 시대와 함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김옥경 피디와 황혜란 배우, 최용석 다큐작가, 그리고 배요섭 연출이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리서치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름다움 그 자체보다는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것과 경험하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했다. 그러는 가운데 벨기에 참여 예술가들이 한 명씩 섭외되었다. 영상을 통해 인터뷰도 진행했다.

2020년 6월에 벨기에 리에주에서 하기로 했던 첫 번째 워크숍은 코로나로 결국 연기되었고, 영상을 통해 2020년 8월 화천과 리에주에서 각각 진행했다. 첫 워크숍은 참여 예술가들 개인의 작업세계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각자가 고안한 워크숍에 다같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그 이후에 이어진 두 번째 워크숍은 명상체험이었다. 벨기에 예술가들이 한국에 들어와 전라도 해남의 미황사에서 4박5일 동안 묵은 수행하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불가하게 되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국의 예술가들은 미황사에서, 벨기에 예술가들은 Huy라는 도시의 티벳템플에서 4박5일 동안 명상체험을 각각 진행하고 다시 영상으로 만나 그 경험들을 나누었다. 명상체험이 이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 경험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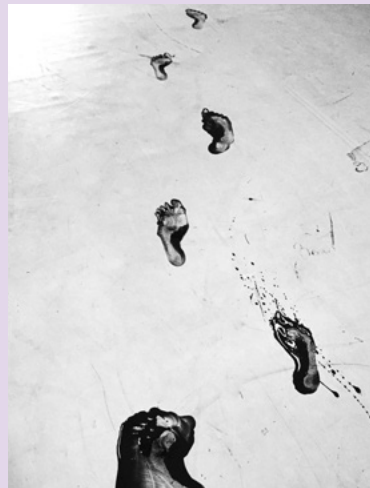
2021년 2월에 이어서 하기로 했던 세 번째 워크숍은 1년 뒤로 미뤄지고 우리는 긴

공백기를 가져야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20분간의 명상을 통해 그 체험을 이어가기로 했다. 명상은 참여 예술가마다 고유한 형식으로 행해졌다. 좌선이나 움직임을, 춤 혹은 그림으로 명상은 가능했다. 명상을 하면서 참여예술가들은 자기 내면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명상이 예술가들의 작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2022년 2월, 마침내 내면 워크숍이 벨기에 리에주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경험하고 있었던 내면의 풍경을 나누는 워크숍이었다.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깊이 듣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으며 서로 소통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도덕경』과 『무경계』라는 책을 읽고 피어오르는 생각을 나누었다.

2022년 7월, 본격적인 실험과 연습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무문관에서 선택된 12개의 공간과 그에 대한 코멘터리를 읽고 ‘소울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각자의 예술적 체험이 녹아든 소울 퍼포먼스를 출발로 첫 2주 동안은 무문관의 공간과 관련된 즉흥 공연들이 이어졌다. 혼자서, 혹은 협업으로 공간에 대한 각자의 통찰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그렇게 제안된 30여개의 즉흥 조각들을 발전시켜 장면들을 구성하게 되었다. 각각의 장면들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움직이는 전시 같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관찰자의 위치에 있던 다큐감독이 작품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함께 하던 비디오 작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서 외부의 시선이 내부로 들어와 다시 외부를 향하게 된 것이다.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경이로운 경험이 생겨났다.

2022년 8월, 5주간 작업을 통해 나온 장면들이 벨기에 스파 Spa 라는 도시의 공연예술축제 야외무대에서 먼저 소개되었다. 우리는 나뭇잎 비비는 소리와 높고 파란 하늘 아래서 100여명의 관객들을 만났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강원도 화천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되짚어본다. 아름다움은 도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감동한다. 폭우로 고통받는 현실, 그 축축함이 남기고간 불쾌한 공기, 이 모든 게 기후변화로 인한 불길한 징조라는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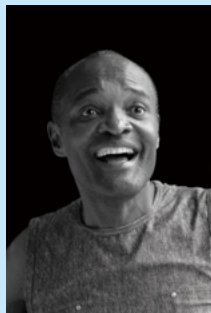
이 작품은 여전히 어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 한 모든 예술가들은 알고 있다. 서울에서의 열다섯 번의 공연과 이후 12월 벨기에 리에주에서 있을 다섯 번의 공연까지 매 공연이 하나의 공간이고 새로운 깨달음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안다. 진정한 시작은 공연이 끝나는 순간부터라는 것도.



저는 콩고 킨샤사 Kinshasa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동시대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 예술가들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한 몇몇 박물관 사이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킨샤사 예술학교 (L'Académie des Beaux-Arts de Kinshasa)에서 그림과 조각을 공부했고, 이후에 벨기에의 국립시각예술학교에서 그림과 3차원 리서치를 공부했습니다. 저의 작품들은 아프리카 식민주의의 유산과 흔적을 다루지만 제 작업의 목적이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 작품들은 인류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에 호소하며 희망, 용기, 공감, 그리고 인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변형 가능성, 그리고 복원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혼종성, 그리고 존엄성을 위한 투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킨샤사와 제가 이주(移住) 정착한 브뤼셀을 오가며 작업합니다. 들뢰즈의 “탈영토화”는 연결, 직조, 가교설치, 바느질, 그물들과 관련된 개념이며 이것은 아프리카와 유럽, 흑과 백, 과거와 현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사이에 자리한 균열 가운데서 상호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업 과정에서 제 앞에 존재하는 다른 매체와의 결합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다른 분야와 주제들을 점유하는 데 익숙합니다.



에메 음파네
Aime Mpane

〈스트레인지 뷰티〉는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위치합니다. 눈에 띄면서 동시에 눈에 띄지 않는 섬세한 대형 천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무대 위에 펼쳐지는 몸의 움직임, 제스처, 포즈를 취하는 행동, 목소리 또는 감정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형태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제 작품창작 과정이 풍요로워지고 있으며, 내러티브가 전면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경과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의 여행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시각예술이거나 시각의 시(詩)입니다.

에메 음파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Musée royal de l'Afrique centrale (Belgium)
Musées royaux des Beaux-Arts de Bruxelles (Belgium)
Brooklyn Museum à New York(USA)
Phillips Collection (Washington, D.C., U.S.A.)
Musée des beaux-Arts de Kinshasa, (Congo)
National Museum for African Art at the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the U.S.A.)
Phillips Collection (Washington, D.C., the U.S.A.)
Detroit Institute of Art (Detroit, USA.)
CA, USA, Microsoft Collection (San Francisco USA)
CA, Studio Museum in Harlem, NY, USA, Francès Foundation (Senlis, France)
Fondation Jean-Paul Blachère (Apt, France)
Palm Springs Art Museum (Palm Springs, CA)
Tiroche DeLeon Collection (Gibraltar)
University of Wyoming Art Museum, (Laramie, Wyoming, USA)...

과거

저는 두 개의 경계선 위에 위치한 벨기에의 한 작은 도시, 무스크론Mouscron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는 벨기에 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으며, 두 개의 경계선 중 하나는 프랑스와의 국경이고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플랜더스와의 경계선입니다. 벨기에 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영토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액센트는 매우 다양합니다. 프랑스와 가까운 곳에서 태어난 까닭에 벨기에 사람들은 제가 프랑스식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벨기에식 액센트를 가졌다고들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었고, 수학과 물리 그리고 과학 일반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틈이 날 때면 음악과 연극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과학자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 드라마스쿨을 졸업한 저는 연극은 충분히 신체적이지 못하고 춤은 충분히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과 연극, 과학 컨퍼런스와 영상이 독특하게 결합된 첫 번째 작품, 〈weltanschauung〉을 창작하며 저의 연극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독일어 제목은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겐 발음하기도 의미를 정확히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클레망 터리옹
Clement Thirion

그 다음 작품인 <Fractal>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인 강연이라는 프레임 속에 27명의 무용수들이 추는 수학적인 발레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이후로 저는 안무가로 불리게 되었고, 제 작품들은 '무용'으로 정의되었지만 저는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연극'에 도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세 개의 동시대 작품들을 차례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연극연출가로서의 위치를 실험하는 것 이상으로 이 작업은 저의 창작방식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춤을 통해서든 텍스트를 통해서든 몸과 공간 그리고 관객 사이에 형식적인 동시에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 저는 텍스트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공간을 발견한 뒤에야 텍스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작업하는 배우들이 일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연기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접어두고 몸과 공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무용수들이 스텝을 배울 때처럼 배우들이 텍스트를 물리적, 음향적 악보로 조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저의 춤 작업은 이와 반대로, 무용수들로 하여금 일련의 숫자들이나 글자들을 외우고 그 위에서 춤을 추는 비정형적이고 낮은 구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작업은 개념적인 패턴들이 생명력과 몸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우리 머리에 던져 줍니다. 저는 배우들에게는 머리보다 먼저 몸을 따르라고 말하고, 무용수들에게는 몸보다 먼저 머리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현재

저는 이제 그러한 유동성이 정체성 그 자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 이상 연극을 하는 안무가나 무용을 하는 연출가로 보지 않습니다. 무용과 연극이라는 두 측면은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에주극장의 예술감독인 세르주 랑고니의 제안으로 〈스트레인지 뷰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르주와는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왔고, 그는 제가 미지의 분야를 탐구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간 배요셉 연출과의 실험은 여러가지 면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명상을 하도록 권유를 받았는데, 제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미리 고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는 저로 하여금 스스로 만들어 낸 장벽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 삶과 예술가로서의 삶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서로 침투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그 기준선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3일 후면 〈스트레인지 뷰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버전을 이곳 벨기에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끼려면 최소 한 주, 혹은 두 주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 만큼 리허설 기간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선보이게 될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 온 예술적 충돌 위에 굳게 자리잡고 있으며, 솔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업과정 내내 저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이해 받고 존중 받았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동료예술가들과 함께 즉흥으로 무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스트레인지 뷰티〉 무대에 서는 것은 아찔하고 극도로 흥분되는 일입니다. 마치 매일 밤 기류를 따라 절벽에서 뛰어 내리는 것처럼, 현재에 굴복하여 예고를 버리고 진정한 미지와의 만남을 끌어안은 일입니다.

클레망 티리옹의 최근 작품

Pink Boys and Old Ladies (2019)

NORMAN c'est comme normal, à une lettre près (2021)

The Soldier's Tale (Stravinsky-Ramuz)(2011)은 한국에서 공연되었으며 배우로 참여했다.



저는 황혜란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른여덟 해를 살다가 강원도 화천으로 이주해서 십이년 간 살았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은 서울과 화천을 왔다갔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말을 하고, 영어를 웬만큼 하고, 일본어를 조금 합니다. 지금은 동료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 달째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역시 일본극단과의 공동작업을 위해 배운 것입니다.

2001년 동료들과 극단을 만들고, 작은 지하 연습실에서 매일 훈련을 하고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잘’ 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흠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공연과 연기. 그것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긴 시간 공을 들여 연습했습니다. 한 점의 의심 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이것이 연극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공연을 볼 때면 가슴이 뛵니다.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찬 공연들, 긴 시간의 노력들이 읽히는 몸들이 등장하는 공연은 언제나 저를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2010년, 도시에서 활동하던 극단이 화천으로 이주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의 폐교로 극단의 근거지가 바뀌자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이 갑작스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이다, 나는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게 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눈 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공허해지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도시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꿈만 꾸던 일들을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십 여년을 보내는 동안 연극, 배우, 연극하는 사람, 예술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근거지가 바뀌었고, 연극을



황혜란
Hwang Hyeran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으니 생각이 바뀌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세상이니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이 공연, <스트레인지 뷰티>는 이러한 변화 한 가운데 자리한 공연입니다. 좋은 배우, 잘 하는 배우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쉽 없이 가다가 결국 그 곳에 도달하면 다른 곳으로 이어진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의 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좋은 배우란 어떤 배우일까요? 좋은 공연이란 어떤 공연일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연극은 어떤 연극일까요? 어떤 연극이 좋은 연극일까요? 이 공연은 저에게 질문 그 자체입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두에게 어필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 매 순간 더 잘 존재하기로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잘 존재하기만 하면 정말 충분한 것일까, 이것은 충분히 잘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충분하더라도 관객에게는 충분치 않은 것 아닐까, 모두는 아니더라도 20퍼센트의 관객에게 충분하다면 그것은 충분한 것일까 아닐까 같은, 아주 단순한 질문들입니다.

유려한 답을 내미는 대신 당연하게 느껴지는 질문을 낫선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공연일 수 있다고 믿기. 내 몸이 지나온 시공간의 경험들을 믿기. 공연 역시 다양한 시공간 속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이런 것들에 기대어 낫선 땅에서 낫선 이들과의 만남을 무엇인가로 바꾸어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늘 두려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혜란

배우-창작자, 워크숍 리더, 드라마투르그 등 공연과 관련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공리원들과 함께하는 '수확하는 몸', 시각 및 비시각인들과 함께 하는 '어둠속에, 풍경', 배우 양종욱과 함께하는 연구발표 '양종욱×황혜란', 화천 할머니들의 삶을 들여다 보는 '오래된 숲의 만찬', 다양한 창작자들의 모임인 '굴러라 동동'과 함께하는 작업 등에 참여 중이다.

2001-2020 공연창작집단 뛰다 단원

2021-현재 공리소문다 공리원

저는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1972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셨기 때문에 세 살 때부터 여러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그래서 저는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를 포함해서 일곱 개 정도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를 말 할 수 있지만 저의 열정은 이른 나이부터 몸의 언어를 향했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고, 16살에는 프로 무용수가 되기 위해 베를린에서 클래식과 모던 댄스를 배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첫 번째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곳에서 4년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95년에 브뤼셀로 와서 1년 동안 P. A. R. T. S(Performing Arts and Research Training Studios) 과정을 마쳤습니다. 무용수로 활동하면서 저는 주로 브뤼셀, 비엔나, 베를린의 안무가들과 작업했습니다. (SOAP 댄스 씨어터의 Rui Horta, Willi Dorner, Les Ballets C. de la B., Sasha Waltz...)

2000년에는 브뤼셀에서 'XL Production'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후 주로 안무가와 연출가로 작업하면서 지금까지 12개의 성인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작품들을 창작해 아비뇽 페스티벌, 파리 바스티유 극장, 런던의 더 플레이스, 스톡홀름의 Dansens Hus, 빈의 Impuls Tanz 페스티벌 등 유럽 각지를 순회했고, 브라질, 캐나다, 미국과 한국에서도 공연을 올렸습니다.



마리아 클라라 빌라-로보스
Maria Clara Villa-Lobos

춤, 퍼지컬 씨어터, 영상, 오브제와 말 등 다양한 언어를 혼용하는 저의 작품은 유머러스하고 시각적으로 강렬하며 소비자 사회나 대중문화, 플라스틱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생태적 이슈에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최근의 작품들은 퍼포머 개인의 역사나 다문화적 관계 등 개인적인 주제들과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출가로 주로 활동하면서 퍼포머나 무용수로 무대에 서지 않은 지가 여러 해 되었기 때문에 처음 리에주극장에서 <스트레인지 뷰티> 프로젝트의 합류를 제안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참여작가 각자가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작품의 재료를 구성해 가기를 원한다는 배요셉 연출의 개념을 이해한 뒤에는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말이지 꽤나 ‘스트레인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미팅과 워크숍에 이어 벨기에에 있는 티벳불교 사원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대단히 깊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적인 힘, 영적인 지식과 훈련을 필요로 하던 저에게 적절한 시기에 찾아온 경험이었다고 느낍니다. 이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가되었던 프로젝트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스트레인지 뷰티>는 공간들만큼이나 수수께끼 같아서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 번 공연을 겪으면서 그렇게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닌 벨기에와 한국의 관객들이 이 공연에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마리아 클라라 빌라-로보스의 2000년 이후의 주요작품

XL because size does matter (2000)
XS (2002)
M, an average piece (2003)
XXL, because big is beautiful (2005)
Super ! (2007)
Head on (2009)
Têtes à têtes (2011)
Mas-Sacre (2014)
Alex au pays des poubelles (2017)
Camping sauvage (2021)
Pedros (2022)

1. WHO ARE YOU?

제 이름은 파올라 피시오타노이며, 1990년대에 매우 엄격한 카톨릭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테니스, 현대무용, 농구, 축구, 달리기, 배구, 창던지기, 클래식기타 등에 도전했습니다. 가끔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을 했다거나 가수 셰어Cher처럼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첫 번째 고양이 부모님 차에 치여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코 그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십대였던 저는 울었고, 록밴드 활동을 했고, 수영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고, 저를 향해 윙크하는 성모 마리아를 보았고, 아마추어 연극수업을 시작했고, 마네킹들과 함께 연기를 했습니다... 연극은 성모 마리아의 윙크보다 한층 더 깊은 발견이었습니다.

20대에는 미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리빙 씨어터와 함께 공연했고, 자전거여행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인터넷에 '브뤼셀에 있는 비싸지 않은 연출 학교'를 검색했고, 몇 달 후에는 브뤼셀의 I'NSAS(Institute national supérieur des Arts du Spectacle et des Techniques de Diffusion)에 들어갔으며 2016년에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극, 리서치 작업, 사운드 디자인 등 공연예술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출로서 지금까지 <c[RISE]>, <EXTREME/MALECANÉ> 등 두 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두 작품 모두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이 어떻게 정치화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유럽의 젊은이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이사벨 푸세, <에일리언>의 에리카 주에넬리 등과 함께 하는 작업에서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무대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저는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허위가 개입하는 지점에 관심이 있고, 개인의 디지털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인지 뷰티>의 사운드 창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올라 피시오타노
Paola Pisciotano

2. WHO WE ARE ARTISTS AND GROW THIS PROJECT INFLUENCED OUR PRACTICE

저는 공연예술분야에서 사운드 디자이너, 연출가, 퍼포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요섭 연출의 〈스트레인지 뷰티〉에 참여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아름다움에 관해 작업한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아름다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스트레인지 뷰티〉는 저에게 예술가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상의 실천에 대해 가르쳐주었는데, 매일의 일상에서 명상하기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감정적이고 긴장을 잘 하는데, 명상은 매일 제가 새로운 에너지의 물길을 내고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명상을 하는 모든 순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 저는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물들에 대해서 전보다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저 스스로를 목격했습니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저는 요섭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신뢰를 좋아합니다. 주의 깊은 시선과 유머를 가진 그는 저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무위(無爲)의 개념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흥미로운 접근방법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운드 창작의 관점에서 〈스트레인지 뷰티〉는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부담이 큰 작업입니다. 사운드 창작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발한발 따라갔으며 대화적 맥락에서 배치됩니다. 사운드의 우주는 퍼포머들의 행위를 풍요롭게 만들고, 풍요로워진 퍼포머들의 행위가 다시 사운드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파올라 피시오타노

연출가이자 연구자, 사운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 미학 철학 학위를 받았고, 2016년에 브뤼셀의 INSAS에서 연극연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는 브뤼셀에 있는 Ateliers Mommén의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최용석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상작가로서 내가 했던 첫 번째 작업은 다른 참여작가들을 촬영하는 것이었다. 촬영 중인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아가 카메라 너머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다. 고속 촬영된 슬로우 모션을 통해 사진이나 일반 영상과는 다른 시간성과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다. (나는 기록 촬영을 위한 다큐멘테이션 촬영자로 작업에 참여했으나 영상아티스트 휴고의 건강상의 문제로 영상작가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나는 최용석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I am yong seok, Who are you?

영상을 만들면서 스스로 질문하며 촬영하기를 바랐다.

질문 속 '당신(Who)'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카메라 너머의 관객 또는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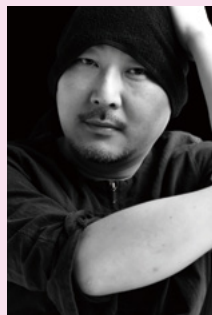
"최용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정말 '나'일까? '나'는 정말 누구인걸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계시(啓示)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믿는 신(여호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출애굽기 3:14'"라는 말로 자신을 정의했다.

그럼 나는 "나"를 스스로 정의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무문관을 생각하며 떠올렸고 I am ooo, Who are you? 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질문했다.

우리는 '집착'에 대한 물음도 질문했다.



최용석
Choi Yong seok

나의 집착은 신에 대한 것입니다.

無. 없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제시되는 무문관의 공간들을 읽으며 '신에 대한 생각에 집착'했음을 깨달았다. '신은 있는가?' 누군가는 없다고 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 자신을 수행하고 단련시킨다. 그런데 무(無)를 정의하려 할 때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중구조에 갇히게 된다. 없다는 건 '있다'는 전제하에 생겨나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無)'라는 개념조차 없을 것이다.

신이 있다 하면 없지 않음을 증거해야 하고

신이 없다 하면 무의 개념을 증명해야 한다.

이곳 벨기에 리에주에서 명상과도 같은 연습과 생활을 반복하면서 갑자기 벨기에 출신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세 개가 떠올랐다. "빛의 제국",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렌체의 성" 그의 그림에서 '기묘한 아름다움'과 '이중구조의 질문'과 내가 구현하기 원했던 '판'의 모습을 떠올렸다. 몇년간 풀지 못했던 나의 작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 퍼즐의 일부 조각을 찾은 듯하다. 이 판의 퍼즐은 계속될 것이다. 이 판은 예정되어 있었거나, 우연히 찾은 것이거나 아니면 무(無)일 수도 있다.

벨기에의 하늘은 너무도 아름답다.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아주 본능적인 것이다. 그것이 왜 아름다운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 안에 내재된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 전 누군가 심어놓은 본능일 것이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듯이, 나는 이 '판' 밖에서 때로 이 '판' 위에서 이들과 함께 느끼는 "낮선 아름다움"을 카메라를 통해 전달하려 노력할 것이다.

최용석

예술학교에서 무대미술과 영화촬영을 공부해온 그는 무대디자인, 사진작가, 영상디자인, 공연과정 다큐멘터리 제작, 공연기록영상제작자로 활동 중이다.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의 작가들과 협업해 영상과 사진 등의 작업을 통해 공연 영상물 등을 제작해 나가고 있다.

- 'HUMAN FUGA' 영상작업

-한&독 협력공연 '보더라인' 영상감독

-[포스트 5·18문학, 새로운 기억의 생산] 오월낭독회 영상감독

-국중문화축전 '시간여행 효명' 창덕궁편 영상감독

-창작그룹 노니, 놀플러스, 궁리소 물다,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엠제이플래닛등 다수 단체와 영상작업 중

① Sound no Sound

Original idea: 배요섭.

공안으로부터 이름 붙일 수 없는 소리에 대한 경험,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킬 수 없는 소리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다.

공안: 무문관 제24칙 이각어언(離却語言)

어느 스님이 물었다. “말과 침묵은 각각 ‘이(離)와 미(微)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와 미에 통하여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풍혈 화상이 말했다. “오랫동안 강남 춘삼월의 일을 추억하였네. 자고새가 우는 그곳에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로웠네.”

② Light in the Darkness

Original idea: 황혜란.

공안이 제시하는 강렬한 빛과 어둠의 이미지에서 출발하였다. 색을 구분하지 않는 어둠의 포용력, 어둠 속에서 솟아나는 빛.

공안: 무문관 제28칙 구향용담(久響龍潭)

덕산이 가르침을 청하러 왔을 때 마침 밤이 되자 용담 스님은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그대는 그만 물러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덕산은 인사를 하고 발을 걷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이 너무 어두워서 되돌아와서 말했다. “바깥이 깜깜합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종이 등불에 불을 붙여 건네주었다. 덕산이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용담 스님은 등불을 붙여 꺼 버렸다. 바로 여기서 덕산 스님은 갑자기 깨닫고 용담 스님에게 절을 했다.



③ Hunted by Frame

Original idea: Hugo, Paola, 황혜란.

공간 속의 무언가를 주고 빼앗는 행위,
카메라가 무언가를 포착하는 행위에서 오는
권력의 이동 등이 파올라의 즉흥 사운드와
연결되어 장면이 만들어졌다.

공간: 무문관 제44척 파초주장(芭蕉柱杖)

파초 화상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④ Mouth Stuck to It

Original idea: Maria, Paola, Hugo.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강렬한 입의 이미지와
‘말한다’는 것의 다양한 형식에서 출발하여
음악, 카메라, 움직임이 결합했다.

공간: 무문관 제5척 향엄상수(香嚴上樹)

향엄 화상이 말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랐는데,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있지만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지도 않고 발로도
나무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하자. 나무 아래에는
달마가 서쪽에서부터 온 의도를 묻는 사람이
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가 질문한 것을
외면하는 것이고, 만일 대답한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⑤ Finger Dance

Original idea: Clément.

손가락을 들어올린다는 강력한 이미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라는 연출의 요구
등이 결합하여 손가락에 페인팅을 하는 장면을
만들게 되었다.

공간: 무문관 제3척 구지수지(俱脂樹指)

구지 화상은 무엇인가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단지 손가락 하나를 세울 뿐이었다. 뒤에
동자 한 명이 절에 남아 있게 되었다. 외부
손님이 “화상께서는 어떤 불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나요?”라고 묻자, 동자도 구지 화상을
본떠 손가락을 세웠다. 구지 화상이 이런
사실을 듣고, 동자를 불러 칼로 그의 손가락을
잘랐다. 동자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방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구지 화상은 동자를 다시
불렀다. 동자가 고개를 돌리자, 바로 그 순간
구지 화상은 손가락을 세웠다. 동자는 갑자기
깨달았다.

⑥ Space of the Singularity

Original idea: 배요섭.

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는 본 모습.
유일한 단독자(singularity)로서 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참여작가들의 풍경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공간: 무문관 제19척 평상시도(平常是道)

조주 스님이 남전 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남전 화상은 “평상심이
도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주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남전 화상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곧 어긋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주가 반문했다.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마음을 항시 고르게 하는 것이 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남전 화상은 말했다. “도는
‘안다’는 것과도, 그리고 ‘모른다’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 ‘안다’는 것은 착각의 상태이고,
‘모른다’는 것은 멍한 상태일 뿐이다. 만일
진실로 ‘하고자 함이 없는 도 不擬之道’에
이른다면, 허공처럼 확 트일 것이다. 어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는가!” 남전 화상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주 스님은 바로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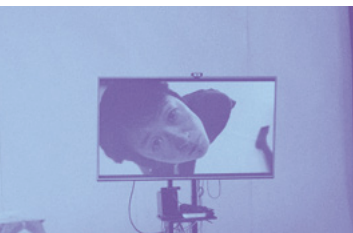


⑦ Landscape

Original idea: Maria, Clément, 황혜란.

공안의 뒷부분에서 풍혈 화상이 강남의 풍경을 노래한 시가 모두에게 인상 깊었고, 거기에서부터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 장면이 발전되었다.

공간: 무문관 제24칙 이각어언(離却語言)



⑧ One Way through the Woods

Original idea:

Aimé, Maria, Clément, Paola, 황혜란.

‘하나의 길’, ‘하나의 선’이라는 뚜렷한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스웨덴의 포크댄스, Jan Fabre의 조각 ‘measuring the cloud’ 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공간: 무문관 제48칙 건봉일로(乾峰一路)

한 스님이 “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하나의 길’로 열반문에 이른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하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묻자, 건봉 화상은 주장자를 들어 공중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했다. “여기에 있다.”

⑨ Take It from Nothing

Original idea: Aimé, Clément, Maria.

있는 것에 더한다는 행위, 없는 것을 취한다는 행위, 공안의 해석에 대한 재해석,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사운드가 주는 영감 등을 바탕으로 장면을 구성했다.

공간: 무문관 제44칙 파초주장(芭蕉拄杖)

⑩ Blind Painting

Original idea: Aimé, 배요섭.

<도덕경> 14장에서 영감을 얻었다. 보이지 않는 이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게 될까.

도덕경 원문: 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만 들리지 않고, 잡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 없는 (視之不見, 聽之不聞, 搏之不得)

* 연습의 첫 주와 둘째 주는 매일 하나의 공안을 놓고 참여작가들이 영감을 얻어 장면을 만든 뒤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출의 제안에 따라 솔로, 듀엣, 트리오, 전체 그룹 등 다양한 조합으로 장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면들은 2주 정도의 탐색기간을 거쳐 대략 1/3 정도가 공연까지 이어졌다.

** <무문관> 번역은 강신주,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댈 수 있는가?>(동녘, 2014)를 참조하였다.

조명 강정희 Kang Jeong-hee	연극	<휴먼푸가>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바후차라마타-Beyond binary> <一物일물> <안티고네> <그와 그녀의 목요일> <사쿠라 가든> <쌈 걸즈> <媚弄(미롱)> <리타> <아트>
	국악	<나무, 물고기, 달> <벨벳토끼> <하얀눈썹 호랑이> <노인과 바다> <오늘, 오늘이>
	음악극	<노래하듯이 햄릿> <꿈 속에서 불어 온 바람> <길 위의 고양이> <초승달>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 <아가사>
	무용	<Project BIRD> <The Lost Wax Project>

음향 안세운 An Se Woon	연극	<보이야르의 노래>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프루프> <하얀꽃 필무렵> <2021 청소년극 창작벨트> <더나은숲> <아리아라리 투어> <만선> <산중호걸> <소년이 그랬다> <햄릿> <노래하는 새 뼈꾸> <햄릿아바따> <버자이너 모놀로그>

영상 정혜지 Jung Hye Ji	연극	<배를 띄우다> <길위의 아이> <심청전을 짓다>
	국악극	<인어공주 황옥>

조연출 김예은 Kim Yeeun	조연출	뮤지컬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기획	판소리전시 <세상의 대비>
	기록	<수확하는 몸>

만드는 사람들

판 디자인·연출 배요섭

참여자작가·퍼포머

에메 음파네 Aimé Mpane

클레망 티리옹 Clément Thirion

황혜란

마리아 클라라 빌라 로보스 Maria Clara Villa Lobos

파올라 피시오타노 Paola Pisciotano

최용석

한국공연 디자인

조명 강정희

음향 안세운

영상 정해지

조연출 김예은

무대보 유태희

무대감독 나혜민

무대제작감독 이승수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 장도희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김영주, 장순호

의상진행 박휘민

조명 오퍼레이터 윤지수

음향 오퍼레이터 장도희

영상 오퍼레이터 박하은

무대제작 올벗(대표 남기상)

구조물제작 아트팩토리(대표 황규동)

영상임차 크리디엘미디어(대표 백승윤)

조명프로그래머 김남수

조명팀 이다빈, 강상진, 김경호, 최민석, 김종용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오세나

영상팀 이영근

기술통역 김효정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마케팅 이현아

온라인마케팅 조영채 오지수

고객관리 김태은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박예지 이예본 임도희 최나운 황수빈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위드텍스트(대표 이지선)

홍보사진·영상 만나 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연습사진 최용석

스파로열페스티벌 공연사진 골도 Goldo

옥외광고 영기획(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대표 김종민)

티켓 김보전

매표안내원 김경은 손주형 양혜선 이승희

하우스매니저 임아라

하우스안내원 김지수 고계령 조세찬 최민아 고혜진

김연정 윤예진 김시은 김은송 이소민

한은별

프로그램북 디자인 전안수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대표 신동복)

1차 워크숍

통역 이수빈

기록 강현주

2차 워크숍

통역 위종천

기록 루이즈 도스튀니 Louise D'Ostuni

벨기에 현지 연출

조연출 잔 베르제 Jeanne Berger

Special thanks to 위고 브릴마케르 Hugo Brilmaker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이정민

리에주극장 해외교류 마빈 로버트 Marvin Robert

공동제작 (재)국립극단, 벨기에 리에주극장

후원 왈롱브뤼셀인터내셔널

협조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주한 벨기에대사관

(재)국립극단

벨기에 리에주극장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극장장 겸 예술감독

세르주 랑고니 Serge Rangoni

사무국장

오현실



국립극단



THÉÂTRE
DE LIÈGE



Wallonie - Bruxelles
International.be

(재)국립극단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신민희 팀장

현승은 김수아 김미지 예산·회계·세무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박지민 박예원 대외협력·평가

이민희 인사·제도개선·이사회

주현우 노무·구매계약·정보화·전산

김시내 비서·복무·복리후생

김혜원 윤리경영·교육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정채영 이정민 김수현 김정연

박소영A 윤정민 박성연 박소영B 프로듀서

김나라 임아라 하우스·접근성매니저

홍보마케팅팀

박보영 팀장

최윤영 김태은 이정현 한지선 홍보

이현아 이송이 변정원 노소연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온라인마케팅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한경 정진영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정광호 팀장

나혜민 김정빈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제작감독

윤성희 무대기계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의상감독

서동민 박소은 청년인턴

이유리 연수단원

작품개발팀

정용성 팀장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정보관리·창작극개발

이슬예 아카이빙·작품개발 정보관리

김가은 청년인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작품개발

손준형 연구개발·기관협력

이송하 청년인턴

2022 시즌단원

강해진 강현우 권은혜 김광덕 김다흰 김명기

김세환 김수량 김시영 김예은 문예주 박용수

박용우 서지우 신사랑 안창현 윤성원 이동준

이은정 이혜미 정대진 정슬기

Haunted by Frame (Hyperan ~~as~~ and Hugo) improv

- Each one doing something different, working on "obsession"

- HC maybe works on 10 more
winks (12 gesture by Kean)

① Josh's dog (dog = Buddha nature?)

② Guji's one finger? (finger cut)

③ Man up a tree (branch mouth)

④ Wash your bowls

⑤ Leaving speech and silence behind (flowers and birds)

⑥ Name echoed long (Diamond sutra)

⑦ Susan's Jibki

⑧ Pach's Jizenga (Giver and take)

⑨ Stepping forward

⑩ One wa
(Drawing)

DOG

MOV-

BIK

S

T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 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크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 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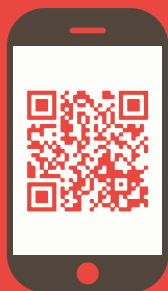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인트 조앤

Saint Joan

작. 조지 버나드 쇼
George Bernard Shaw

연출. 김광보

번역 임성균
문책 윤성호
안무 금배섭
무대 박상룡
조명 이동진
의상 홍문기
사운드 독소
분장 이동민
소품 정윤정

출연
백은혜 강현우
김다현 김수량
박상준 박용수
박진호 유연수
윤성원 이동준
이승주 장석현

2022. 10. 5. - 10. 30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